

이재은 X 전보경 'INVISIBLE.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

이재은은 이번 전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B1 전시장을 통해 보여 준다. 이 전시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보여 주는지 보여 준다. 이 전시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보여 주는지 보여 준다.



전시장 입구

이재은 <In-visible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전시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보여 준다. 이 전시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보여 주는지 보여 준다.

이재은은 이번 전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B1 전시장을 통해 보여 준다. 이 전시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보여 주는지 보여 준다.



미술사의 준비물

미술사란 무엇인가. 미술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미술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미술은 인간의 문화를 형성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미술은 인간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길이다. 미술은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미래를 꿈꾸는 창이다. 미술은 인간의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주는 빛이다. 미술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존엄을 지키는 울타리이다. 미술은 인간의 가능성을 넓히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열쇠이다. 미술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울리는 마법이다. 미술은 인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힘이다. 미술은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미래를 꿈꾸는 창이다. 미술은 인간의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주는 빛이다. 미술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존엄을 지키는 울타리이다. 미술은 인간의 가능성을 넓히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열쇠이다. 미술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울리는 마법이다. 미술은 인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힘이다.



도시의 토템, 작가가 도시에서 수집한 사물들

도시의 토템, 작가가 도시에서 수집한 사물들

도시의 토템, 작가가 도시에서 수집한 사물들



이채은 작가의 전시

이채은 작가는 2010년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에서 활동하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에서 활동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에서 활동하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에서 활동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에서 활동하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에서 활동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에서 활동하며,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부산에서 활동했다.



በዚህ ስራ ላይ የተጠቀሱት ስራ ስራዎች ለ ስራ ስራ ስራ. ስራ ስራዎች ስራዎች ስራዎች ስራዎች, ስራ ስራ ስራዎች ስራ ስራ ስራዎች ስራ ስራ ስራዎች. ስራ ስራ ስራዎች ስራ ስራ ስራ

정원은 길들이 있는 정원, 이채은. 끝없이 두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 이채은. 출처: 대구예술발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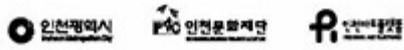


끝없이 두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 이채은
출처: 대구예술발전소

정원은 길들이 있는 정원, 이채은. 끝없이 두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 이채은. 출처: 대구예술발전소

Incheon Art Platform B
 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

6.28-7.22 2018
 11AM-6PM
 MON CLOSED



출처: 인천아트플랫폼 홈페이지

□ □ □ □ (□□□□□□ 3.0 □□□□)